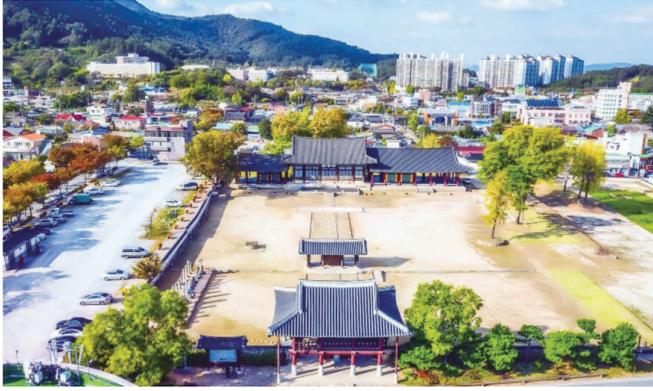


# ‘살고싶고, 오고싶은 나주’ 나주읍성 매력 높인다

나주시,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선정  
 특교세 9억원 등 18억원 확보... ‘나주 첫 만남 센터’ 조성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읍성권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살 만하고 올 만’한 글로컬 상권 조성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생활권 로컬브랜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차별화된 고유 자원을 활용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 경쟁력을 갖춘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곁집으로 15분 내의 생활권의 맞

춤형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 인프라 유형’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 총 18억원을 확보했다.  
 ‘나주읍성’ 못대, 세계로 잇다라는 주제로 금남동, 성북동 일원 나주읍성권 역사·문화·예술 자원과 한옥 숙박 체험, 상권 먹거리를 관광객과 연결해줄 핵심 공간인 ‘나주 첫 만남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제 교류 행사, 로컬 문화 체험, 읍성 상인 상생 프로젝트, 수문장 교대 의식, 나주읍성 옛길 투어 등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 활성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읍성이 보유한



매력적인 역사문화자원을 관광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생활인구, 관광객 유입을 통해 한옥 숙박, 상권 활성화 등 원도심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곡성작은영화관과 옥곡면 묵은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 영화관, 공연장 등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무료관람,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 곡성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운영 가정의 달 5월, 숲에서 문화예술을 즐긴다!

지난 3월 곡성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버스킹공연과 공동체 영화 "오빠 남진"을 상영하였고, 지역민 100여 명이 문화 혜택을 누렸으며, 4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준비하며 가족 단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30일에 열리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주민이 함께 시청하는 공동체 영화 "목소리들"을 상영한다. 제주 4.3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재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오는 5월 3일에는 옥곡면 묵은숲을 배

경으로 "예술 먹은 숲"이란 주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술 먹은 숲은 곡성이 가진 자연에 예술과 문화를 더해 생태 감수성을 느끼고 지역민들이 자연속에서 음악과 놀이, 미술 등 문화예술에 빠져드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전하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인터넷 곡성교육포털(<https://www.gokmg.or.kr/edu/>)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완도군의 출생아 수는 '23년 143명에서 '24년 171명으로 19.58% 증가했으며, 합계 출산율은 '23년 1.05명, '24년 1.24명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남 합계 출산율 1.03명 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완도군은 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가입력 검사를 기존에 1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따라 주기별(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 제2주기, 35~49세 제3주기)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 완도군, 저출산 극복 '임신·출산 지원 정책 다양' 지난해 출생아 수 171명, 합계 출산율 1.24명 상승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임신 시 무료 건강검진,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등) 및 교통카드(20만 원), 출산 전 준비금(2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첫 만남 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등), 출산 장려금(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300만 원, 여섯째아 2,100만 원 등),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돌맞이 축하금과 육아 용품 구입비(50만 원) 등을

없이 1회당 최대 30~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우철 군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군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보건국의료원 모자보건실(061-550-6754, 6755)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장선우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영농철을 맞아 15일부터 농업인에게 안전수칙 철저를 당부하는 등 농기계 사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기온 상승과 함께 각종 농작업이 시작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에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 것.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 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남 농기계 사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135건이고, 이 중 30%가 4~6월에

## 영암군,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활동 나서 안전수칙 철저 당부... 임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병행

집중됐다.  
 사고 유형은 끼임, 전복·전도, 교통사고가 많고, 좁은 농로와 기계 정비 불량, 사용 미숙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영암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안전수칙 안내,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장 기술지원 병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모두가 안전 속에서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센터가 돕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마을이 브랜드' 순천, 마을여행 브랜드로 키운다 '순천마을스테이 브랜드 발굴 및 2025 로컬여행주간' 본격 착수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역 마을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체류형 관광 브랜드 '순천마을스테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17일 '순천마을스테이 브랜드 발굴 및 2025 로컬여행주간 운영'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시작을 알렸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순천마을여행'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순천의 마을이 가진 고유한 자원과 일상 속 이야기를 관광 콘텐츠로 발굴해, '머무는' 여행을 넘어 '살을 체험하는' 여행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마을 여행자원 조사 ▲순천마을스테이 BI(Brand Identity) 개발 ▲마을호스트(운영주

체) 육성 ▲마을별 숙소·식당·체험 연계 콘텐츠 발굴 ▲2025 순천로컬여행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3개월간 운영될 '순천 로컬여행주간'에서는 실제로 관광객이 마을에서 자고, 먹고, 체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의 원도심순천만 치유관광 권역을 중심으로, 자연·문화·음식·힐링자원을 연계한 '슬로우스테이'형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여행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팸투어, SNS 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의 숙소 예약 플랫폼과 연계해 실질적인 방문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정영인 기자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새 단장... 사업비 12억 확보 전남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선정... 물놀이장 등 중점 도입

장성군이 전라남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도비 포함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홍길동테마파크에 △복합 놀이 시설 △물놀이장 △체험형 시설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체계적인 콘텐츠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황룡면 아곡리 390번지)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인 '홍길동'의 이야기를 주제로 조성된 '테마형 관광지'다. 홍길동 생가와 산채체험장, 야영장,



정백한옥(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축령산의 맑은 공기와 탁 트인 야외공간이 매력적이지만 2004년 개관해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홍길동테마파크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관광지의 콘텐츠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